

# 기아 전기차 미국 판매량 2배 증가...EV9 흥행 돌풍

### 올들어 3만3957대 팔려...0.9% 성장 美시장서 100% 성장

### EV9 1만1486대 판매...전체 기아 전기차 판매량 34% 차지

기아가 올해 미국 시장에서 작년 2배 수준의 전기차(EV)를 판매하며 '전기차 신성장'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최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캐즘' (일시적 수요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기아의 프리미엄급 스포츠유틸리티(SUV) 전기차인 EV9의 흥행 속에 역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특히 '행' 회사인 현대차보다도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 1~7월 미국에서 3만3957대의 전기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1만6941대)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역대 1~7월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미국의 전체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1~7월 63만 8716대에서 올해 1~7월 64만4752대로 0.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기아의 미국 내 판매량 증가세는 유독 눈에 띈다. 현대차도 지난해 동기 대비

18.1% 성장한 3만7673대 판매해 시장 전체 점유율을 상회했으나, 기아보다는 성장 속도가 더뎠다.

기아의 활약으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룹의 1~7월 합산 점유율은 11.1%(현대차 5.8%·기아 5.3%)로, 역대 1~7월 전기차 점유율 중 최고 수준이다.

기아는 친환경차량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가 강세를 보이는 흐름 속에서도 높은 전기차 판매고를 올렸다.

기아의 전체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라인업 안에서 전기차의 비중도 눈에 띄게 커졌다. 지난 1~7월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량(7만6393대) 중 전기차(3만3957대)는 44.5%를 차지했다. 기아가 판매하는 친환경차 10대 중 4대 이상이 전기차라는 뜻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차 비중(23.7%)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커졌다.

같은 기간 현대차의 친환경차 포트폴리오 내에서



기아 EV9.

전기차의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과 상반된다.

현대차의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7월 35.4%로, 지난해 동기(36.2%)보다 0.8%포인트 줄었다. 미국 테슬라도 전기차 '캐즘' 및 시장 경쟁 심화로 고전하고 있

다. 테슬라는 지난해 1~7월보다 12.3% 감소한 32만9400대 판매했으며, 점유율은 7.7%포인트 감소한 51.1%를 기록했다.

기아의 성장세를 이끈 주역으로 대형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SUV) EV9이 꼽힌다.

EV9은 지난 1~7월 미국에서 총 1만1486대 판매돼 전체 기아 전기차 판매량의 34%를 차지했다. 국내 시장에서 EV9 판매량은 많지 않은 것과 달리 미국 시장에서는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EV9은 기아의 판매 실적에 순증 효과를 주고 있다.

그룹 전체 모델별로 보면 1위 현대차 아이오닉5(2만2144대), 2위 EV6(1만2488대)에 이어 EV9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와의 격차는 1000대 가량에 불과하다.

다만 업계는 EV9 신차 효과에 기대에는 전기차 시장 상황이 제한적인 만큼 장기적 친환경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차 라인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EV6, 니로 등 다른 전기차 모델의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20% 감소한 점에서 기아가 '캐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기아의 1~7월 미국 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3만4111대로 작년 동기 대비 35.1% 줄어든 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기아 미국 법인은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며 "수개월 내 카니발 다목적차량(MPV)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는 등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연합뉴스

## '아이오닉5 N' 고성능차 비교 평가 'BMW M2' 제쳐

### 아우토자이툰 5개 항목 비교

현대차의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 <사진>이 독일 브랜드의 고성능 차량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는 5일 "아이오닉5 N 독일 유력 자동차 전문 매거진 '아우토자이툰'이 실시한 고성능차 비교 평가에서 BMW M2 모델을 제쳤다"고 밝혔다.

아우토자이툰은 아우토발트, 아우토모터운트슈포르트와 함께 독일 3대 자동차 매체로 꼽힌다.

최근 아우토자이툰은 현대차 아이오닉5 N과 BMW M2의 차체, 주행 편의, 파워트레인, 역동적 주행 성능, 친환경성 및 경제성 등 5개 항목을 비교 평가했다.

아이오닉5 N은 5개 항목 중 4개 항목(차체·주행 편의·파워트레인·친환경성 및 경제성)에서 M2를 앞서 총점 2783점을 받았다. 2694점을 획득한 M2와는 89점 차이였다.

전기차 특성상 아이오닉5 N이 M2보다 공차중량이 500kg가량 무거워 역동적 주행 성능 항목에서는 열세를 보였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아우토자이툰은 2.2t에 달하는 공차중량에도 아이오닉5 N이 압도적 성능을 발휘한다고 평가했다.

사실적인 주행용, 정지 상태에서 시속 2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11.3초로 M2보다 1.2초나 빠른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편안한 주행을 위한 서스펜션 세팅, 넉넉한 실내 공간, 전기차 특유의 경제적인 유지 비용 등도



가점 요소였다.

BMW의 준중형 2시리즈 기반 고성능 모델인 M2는 최고출력 460마력, 최대토크 56.1kg·m를 발휘하면서도 1.7t의 가벼운 차체 무게로 민첩한 움직임을 자랑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N이 M2를 상대로 한 비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유럽 고성능차 시장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강

조했다.

아이오닉5 N은 N 브랜드 최초의 고성능 전기차로 전·후륜 모터 합산 478kW(부스트 모드 기준 650마력)의 최고출력과 770Nm(부스트 모드 기준 78.5kgf·m)의 최대토크를 발휘한다. 84kWh(킬로와트시)의 고출력 배터리와 고성능 전기차에 특화된 열관리 제어 시스템 등 N 전용 기술이 적용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파리바게트 '캐스퍼 제휴 프로모션'

현대차와 파리바게트는 5일 "8월 한 달간 '캐스퍼 일렉트릭' <사진> 제휴 프로모션을 한다"고 밝혔다.

프로모션은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구매 이벤트와 경품을 제공하는 추첨 이벤트로 진행된다.

현대차는 이벤트 기간 내 파리바게트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캐스퍼 일렉트릭 예약금 10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오프라인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나 파리바게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현대차와 파리바게트는 애플망고 빙수를 포함해 빙수 3종을 구매한 고객이 응모할 수 있는 경품 추첨 이벤트도 한다. 1등에게는 캐스퍼 일렉트릭 1대가 주어지고, 2~5등에는 호텔 숙박권, 네이버



페이 5만원권, 케이크 교환쿠폰 등이 제공된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은 49kWh(킬로와트시)의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최대 주행가능 거리가 315km인 경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벤츠 코리아,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 10년 연속 1위

### 수입차판매점 등 2개 부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5일 "2024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KSQI는 고객 관점에서 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지수로, 벤츠는 '수입자동차판매점' 부문과 '수입인증중고차'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1개의 평가 항목 중 8개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는 등 서비스 필수 영역에서도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혁신적인 상담 프로세스와 서비스 디지털화를 도입한 인테리어 콘셉트를 적용하고 있으며 최상위 브랜드 특화 전시장을 운영하며 브랜드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벤츠 코리아는 설명했다.

이상국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은 "최고의 브랜드에 걸맞은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고객 접점 분야에서 노력한 덕분에 2개 부문에서 각각 10년 및 4년 연속 1위 선정이라는 뜻깊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차별화된 서비스와 브랜드 경험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들이 '2024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1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인증중고차 상품화 전담인력이 품질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 현대차 군산에 세번째 인증 중고차센터 개소

현대차가 전북 군산에 세번째 인증 중고차 센터를 열었다.

5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 인증 중고차 군산센터는 9043㎡(2735평) 면적에 상품화시설, 200대 규모 치장장, 출고 작업장, 차량 보관 및 배송장 등을 갖췄다.

월 120대까지 상품화할 수 있고, 향후 400대까지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번 군산센터 개소로 현대차는 양산 800대, 용인 538대를 포함해 총 1538대의 인증 중고차를 보유하게 됐다.

현대차는 상품 종류를 다양화하고, 서남권 거점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이다.

매입된 차량은 입고 점검, 정밀진단, 판금·도장 등 품질개선, 광택 세차, 최종 점검, 품질인증, 배송 전 최종점검 등 상품화 프로세스를 거친다. 또 소모품 및 부품 교환이 필요한 경우 100% 제조사 인증 부품으로만 교체가 이뤄진다.

현대차 인증 중고차는 국내 최대 수준인 272개 항목(제네시스 287개 항목)의 진단·검사를 통해 품질 인증을 받고 판매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 LPG협회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서포터즈 2기' 모집

대한LPG협회가 오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서포터즈 2기'를 모집한다.

신형 포터2와 봉고3 LPG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 인원은 모두 30명이다.

서포터즈 활동 기간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활동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채널에 LPG 트럭 주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 된다.

서포터즈에게는 ▲활동비 60만원 ▲20만원 상당의 LPG 충전권 ▲활동 기념품 ▲우수 서포터즈 특별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포터즈 신청은 대한LPG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오는 26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